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총력

전주시와 완주군은 이용자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환승기반의 시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선개편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노선개편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전주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33개동과 혁신도시 등 34개 지역 순회 방문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SNS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완주군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노선개편 우선시행지역으로 선정된 삼례읍, 이서면 지역과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봉동읍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선개편 사항을 상세

## 환승기반 시간선제 도입 주민의견 수렴 분주

히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9월 현재 양 지자체는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바탕으로 노선개편안에 대해 재수정하고 시민,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10월 이후부터는 주민 홍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04년 1월 시간선제를 처음 시행했으나 2주일 만에 실패한 후 수차례 시간선제 시행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로 무산된 바 있다.

민선6기 들어 시간선제 노선개편은

속도를 냈다. 지난해 양 지자체 및 의회, 버스업체간 협약을 기반으로 행정의 실현 의지가 더해져, 쟁점사항 등을 조율해왔다.

성공적인 노선개편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주요계층인 고령자, 학생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승거점에 교통도우미 배치, 마을주민 요구시간대 환승없이 완주군과 전주시 직통연결, 고령자 전용 홍보물과 같은 다양한 맞춤형 홍보방안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최근 양 지자체는 노선개편 시행시

기에 있어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과거의 시간선제 실패사유인 △환승 대기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미흡 △한 겨울에 시행한 부적절한 시행시기 △환승불편 해소책 마련 미흡 △주민의견 수렴 부족 △노선개편 홍보 부족 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전면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와 완주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노선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때 까지 양 지자체는 주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완주=이종복 기자



새로 바뀐 전주시 도로명판(사진 오른쪽).

전주시는 시민의 위치 찾기 편의증진 및 시설물 안전을 위한 도로명판 정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도로명판에 녹물이 흘러 도로명을 가리는 현상 등을 제거하고 안전을 위한 보조와이어 교체작업을 실시했다.

## 전주시, 도로명판 정비 완료

정비 규모는 올 상반기 일제점검 결과 조사된 244개소에 대해 실시했으며 약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위

찾기기를 위한 필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도로 곳곳에 설치돼 도시미관과의 조화도 중요한 만큼 이번 정비로 시민의 편안한 길 찾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시설물관리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한 만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성실히 수행해 시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건강한 먹거리 제공' 협력체계 구축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유강열)과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전섭)는 21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소재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기관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

역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창출에 일익을 다하는 농업기관이 손을 맞잡음에 따라 향후 전주시 농생명 분야 발전 전반에 걸친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생명 산업 발전과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품개발(R&D) 및 농가 지원사업 공동진행 △지역농산물 소재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등 정보제공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 시책사업 협력 추진, 판로확보, 판매확대 및 홍보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전주시 농가 및 기업 지원사업에 협력하고 다양한 연구개발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시

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 연구개발과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로 지속가능한 농업경제 보장 등 전주 농생명 산업(농업·식품) 발전의 기틀을 다지게 될 전망이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난해 기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에서 농생명을 키워드로 한 명칭으로 변경하면서 전주미나리와 콩나물, 버섯, 새싹 등의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 식품과 이색순대와 비빔밥, 수산물 등 간편편의식품 개발 등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또한 전주시 마을기업 등과 연계한 지역 농식품기업과 함께 6차 산업화 등도 진행 중이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 나서

## 용담댐 ~ 고산정수장 시민 워터투어 실시

전주시가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1일 수돗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모집된 전주시민 40여명과 함께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댐에서부터 정수처리시설이 있는 고산정수장까지 둘러보는 현장체험인 시민 워터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워터투어는 용담호 물 홍보관과 고산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오는 10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16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워터투어 참가한 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전주권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최첨단 정수처리시설을 체험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게 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민 워터투

어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수돗물의 음용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워터투어에 참여한 시민 김우현(중화산2동)씨는 "평소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으로 음용을 꺼려왔는데, 용담호의 깨끗한 수질상태 및 과학적인 정수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돼 앞으로 수돗물을 믿고 음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끗한 전주시 수돗물을 널리 홍보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이행원 맑은물사업본부 수질관리과장은 "최근 문제가 된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준 것은 다름 아닌 수돗물의 보급이었다"며 "이번 워터투어를 통해 수돗물을 아껴 쓰고,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소중한 수자원을 보전하는데 전주시민이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치매상담센터, 치매예방사업 진행

## 경기전 광장서 캠페인 전개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센터장 김경숙)는 21일 '제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예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치매극복의 날'(9월 21일)은 치매인식개선과 예방 및 조기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날로, 이날 캠페인에서는 치매정보 체험존과 치매검사 및 전시존 등 다양한 부스 운영을 통해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전주시 치매상담센터는 이날 홍보캠페인을 시작으로 치매극복의 날을 기념한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3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교육실에서는 치매환자 및 가족과 시민 130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인식개선 강사가 진행된다. 이날 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오는 28일 전북도청 공영장에서는 전북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하는 치매극복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전주시 치매예방 홍보보드를 설치해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홍보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활동 작품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 8만 714명 중 치매 추정 인구수는 7345명(치매 유병률 9.1%)이며,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87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전주시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예방교육과 함께 관내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30개소를 지정해 치매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해야하는 만 60세 어르신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가구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월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치매상담센터(063-281-6291~5, 62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중고차 허위매물 올린 2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매물을 올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7일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 허위로 SM7(2015년식) 차량을 9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